주제칼럼

고 공데이터베이스 사업 지난 2년을 돌아보며

장원흥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전무이사

정부의 데이터베이스산업 육성 대책의 주요 사업으로 시작된 공공데이터베이스 개발 사업이 벌써 두 해를 지나 3차년도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그동안 사업 추진과정에서 다소간의 문제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제도 개선으로, 개발 과제 및 업체 선정과정이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 2개년동안 145개의 과제가 선정되어 이미 32개 과제가 개발 완료되어 서비스중이며 올해말에 40여 과제가 추가로 개발 완료되어 일반 이용자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당초에는 개발된 공공데이터베이스의 이용 문제로 관계자들이 깊은 우려를 하였으나 최근에는 일반 상용 데이터베이스 이용 수준에 근접하고 있어 상당히 고무적이다.

지난 2년간의 공공데이터베이스 사업을 돌아보며, 올해부터 정책적으로 다소 변경된 부분과 함께 향후 공공데이터베이스 사업의 발전 방향을 생각해 본다.

기간 데이터베이스 구축 지원

당초 공공데이터베이스 사업을 추진하게된 근본 취지를 되돌아 보면 하나는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국내 소규모 데이터베이스 업체를 재정적 측면에서 지원한다는 것과 다른 하나는 국가적으로 기간이 될 수 있는 정보원을 발굴하여 이들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한다는 것이었다.

지난 2년의 공공데이터베이스 사업은 두가지 취지중 중소 규모 데이터베이스 업체 지원 성격이 강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현재 추진하고 있는 '96년도 공공데이터베이스 사업은 이미 정책 추진 방안에서 밝힌 바와 같이 대형 멀티미디어 데이터베이스를 중심으로 그 기본 방향을 잡고 있는데 다름 아닌 국가적인 기간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일본의 경우 전체 데이터베이스의 종수는 1994년말 기준 1,048종으로 우리나라 907종과 그다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러나 레코드 규모면에서 본다면 현재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일본의 경우 일본과학기술정보센터의 JOIS 파일, 일본제국데이터뱅크의 기업정보 파일 등 수백만 레코드 규모의 데이터베이스가 여러개인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십만건이 넘는 데이터베이스도 드문 형편이다.

무조건 레코드 건수가 많은 데이터베이스가

좋은 데이터베이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기간 데이터베이스의 기본 조건임에는 틀림없다.

이용자 중심의 공공데이터베이스로 발전

공공데이터베이스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러 사항이 지적되었지만 그 중에서도 이용자 측면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지난 2년간은 과제 선정 과정에서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로 부터 과제 제안을 받아 그중에서 과제를 선정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즉 데이터베이스 공급자 중심의 과제 선정을 하였다. 물론 이러한 방법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에 따라 '95년 7월 부터 10월 까지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는 한국갤럽조사연구소와 공동으로 데이터베이스 이용실태 및 정보수요조사 사업을 이미 끝마쳤으며 내년 공공 데이터베이스 과제는 조사된 데이터베이스 이용자들의 의견을 반영할 것이다.

정보개발지도 통한 공공부문 정보원 발굴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지난 2년은 민간사업자를 중심으로 과제 제안을 받았다.

이러한 과정에서 민간 업자의 기발한 아이디어를 모을 수 있는 장점은 있었지만 정보화의 근간과 기반이 되는 공공부문의 정보자원을 계획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 하는데는 상대적으로 미치지 못했으며 개발기관들 사이에 지나친 과열 현상이 나타났다. 따라서 '96년도에는 종전보다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중심으로 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데이터베이스 이용 실태 및 정보수요 조사와 동시에 국가정보자원 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정보현황분석표(일명 정보개발지도)를 작성하였다.

처음이라 공공부문의 정보자원에만 한정하였으나 민간부문으로 확대, 자원 분석의 체계화 등을 보완하면 국가의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 개발 정책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기적인 유지관리 계획마련 시급

공공 데이터베이스 사업이 이제 세번째 해를 맞이하여, 계획대로라면 2개년이 남아 있다. 전문가들이 지상에서 여러번 언급한 바와 같이 데이터베이스가 그 가치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지속적인 갱신과 시스템의 지속적인 유지 관리가 전제로 되어야 하며, 사실 정상적인 데이터베이스로 발전하기 까지 이러한 유지 관리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현재 공공 데이터베이스 사업은 이러한 부문이 개발자 부담으로 되어 있어 사실 어렵게 개발된 데이터베이스가 무용화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우려되며,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는 물론 관계 기관이 고심중에 있어 좋은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끝으로

아무리 훌륭한 정책과 제도가 있더라도 데이터베이스 산업 업계 여러분의 정성과 노력이 뒤따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지난 2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를 비롯한 관계 기관은 나름대로 '96년도 공공데이터베이스 사업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공공 데이터베이스 사업 전반기를 보내며 관계자 그리고 개발에 직접 참여한 업체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표한다. DC